

살아 계신 예언자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교회의 머리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롤드 비이 리 대관장은 계시에 의해 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으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의 지도로 주께서 지시하는 대로 인도를 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리 대관장은 용기있는 분이요, 주님의 위대한 종이며 복음의 진실함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최근 미국의 중앙지의 하나인 로스앤젤리스 타임스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실 때 리 대관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론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만을 기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선물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받아 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부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예언자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데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회원은 누구나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를 위해 새로운 사람을 찾고 구도자와 새로운 회원들과 우정을 나누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회원은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복음 선교사의 목적은 회원이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보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원은 복음을 배워야 할 사람을 찾아 내어 선교사에게 소개하고 선교사는 이들을 가르쳐 침례를 줄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해롤드 비이 리 대관장은 참으로 예언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변하는 대표자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대관장의 권고와 지시를 따르면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화평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충실한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화평과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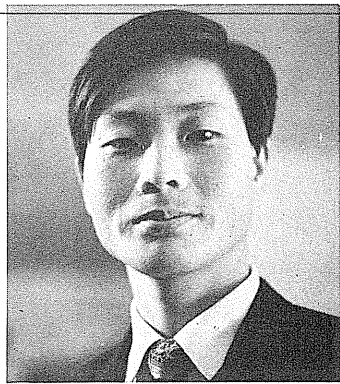
선교부장 엘 에드워드 브라운

새로운 선교사

박 희원

약 10 년동안의 신앙 생활을 쌓은 동부 지부 소속의 박 희원 형제는 10 월 25일 부름을 받고 그의 첫 임지 여수 지부로 떠났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복음에 대한 간증으로 많은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함 현숙

현재 성북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군산지부 소속의 함 자매는 평소에 갖고 있던 자신의 간증을 선교 사업을 통하여 좀더 훌륭하게 키울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강 문자

부산 지부 소속의 강 자매는 함자매와 같이 성북 지부에서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특히 지부 회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허 영애

지난 5월 23일 부름을 받은 전주 지부의 허 자매는 일찍 부름은 받았으나 동반자가 없어 선교 사업을 못 했다면서 동반자를 얻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 종숙

군산 지부 소속의 전 자매는 지난 9월 25일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현재 청운 지부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자매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의 간증을 피력했다.

